



일회용품 규제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
03



Life

현대지에프홀딩스
매출 40조
'비전 2030' 속도
나



“지자체, 교육정책 전문성 부족… RISE센터 독립 법인화해야”

대학교육협의회-정책학회 포럼

정책 추진 일관성 결여 등 우려
10년 이상 전문가로 구성해
대학-지자체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정책학회가 '성공적인 RISE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최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대학-지역 동반성장 포럼'에서 교수들은 RISE 사업 성공 여부는 대학과 지자체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달려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부가 지역의 소멸 위기 극복과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위해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s & Education) 안착을 위해 지역 RISE센터를 독립 법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는 체제 특성상 지자체의 교육정책 관련 전문성 부족과 정책 추진 일관성 결여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정책학회가 '성공적인 RISE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최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대학-지역 동반성장 포럼'에서 이강형 경북대 기획처장(전국대학기획처장협의회장)은 “지자체의 고등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 선출직

인 지자체장에 따른 정책 추진 일관성 결여, 지자체 구성원의 잦은 인사이동 등을 고려할 때 각 지역 RISE센터의 독립 법인화가 필요하다”라며 “협업형 거버넌스 구축이 핵심인 상황에서 현재는 다소의 불협화음이 있기에 지자체와 협의를 이루기 위한 해결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RISE는 중앙정부 주도의 대학지원

방식을 지역 주도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이양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경쟁력 있는 지역 대학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경남·경북·대구·부산·전남·전북·충북 7곳이 시범 지역으로 지정돼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중이다.

이날 국내 교수들은 RISE 사업 성공 여부는 대학과 지자체의 협력적 거버넌

스 구축에 달려있다고 입을 모았다.

윤우영 계명문화대학교 기획실장(전문대학RISE지원단 전문위원)은 “RISE 센터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라며 “고등교육 10년 이상 혹은 산학협력 10년 이상 전문가로 구성해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용 충남대 교수는 지역대학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고등교육과 지역협력의 전문성에 기반한 RISE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RISE 체계 안착 및 대학 주도 지역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고등교육위원회(가칭)의 위원장으로 지역대학의 총장을 선임하거나 지역대학 총장과 지자체장 공동위원장 체제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법은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앞서 지난달 31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지방대육성법 개정안) 11조2항에는 “지역고등교육위원회의의 구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대학 등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동위원장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사업'과도 연계해 교육·정주 여건 개선을 통합적으로 지원해달라는 주문도 나온다. 이영 한양대 교수(지방시대위원회 위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대학, 산업의 연계 강화를 통해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체제 구축이 실현돼야 하며, 지역인재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RISE사업과 교육발전특구 사업과의 연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교협은 이번 정책포럼을 통해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대학과 지자체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관련 법령(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개정과 RISE 체계 운영에 대한 구체적 지침 제정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다산콜재단, 만족도 높이기 위해 운영체제 개선 나서

ARS 없이 상담사와 바로 연결 챗봇상담 서비스 범위 확장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이 신속 정확한 상담으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운영 체제 개선, 채널 다변화, 행정 피드백 등을 추진하고 있다.

8일 다산콜재단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보고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상담 건수는 2020년 623만8229건, 2021년 751만6257건, 2022년 740만

7350건으로, 연평균 705만3945건에 달했다. 올해 총 상담 건수는 9월 기준 540만9365건이며, 이 추세대로라면 연내 720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단은 '시민 중심 소통행정 구현'을 미션으로 삼아 '시민 대기시간-연결불가율 제로화', '전화상담 응대율-상담 만족도 100% 달성'이라는 경영 목표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우선 재단은 연결 지연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RS 없이 상담사와 바로 연결되는 전방위 상담 체계를 구축했다. 재단은 상담 분야 간 업무 칸막이를 제거하기 위해 전 직원이 멀티 상담 역량을 갖추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응대율 취약 시간대인 평일 아침 8~10시에는 조기 출근자를 배치하고, 평일 점심시간 전후인 오전 11시~오후 3시에는 오후 파트를 가동한다. 퇴근 시간인 오후 5~8시에는 초과시간 근무자

를 두고, 취약 요일인 월요일과 금요일엔 초단시간(주 14.5시간) 근무자를 투입하는 등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 중이다

재단은 포상 주기를 분기에서 분기로 단축하고, 인센티브 기준을 세분화해 응대 수준 향상을 도모했다. 그 결과 작년 56초이던 평균 대기시간이 올해 12초로, 44초 줄었다.

재단은 이달 중 365일 24시간 연결 지연 없이 보이는 ARS(자동응답서비

스)를 도입하고, 오는 12월까지 전방위 상담을 위한 상담사 교육과 급여체제 개편 컨설팅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재단은 챗봇상담 서울톡, 채팅상담 서비스, 120메타버스소통센터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상담 서비스를 활성화해 이용자 저변을 넓혔다. 올 9월 기준 챗봇상담 이용자수는 41만명을 넘어섰고, 일평균 이용자수는 1036명에 이른다. 이용실적은 2020년 50만건에서 지난해 164만건으로 약 3.3배 증가했다. 이는 챗봇상담 서비스 범위를 확장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장민원은 46종에서 54종으로, 행정안내는 473종에서 590종으로 늘렸다. /김현정 기자 hik1@

인천시, '1000만 애인 소통 토론회' 개최

위원·전문가 등과 시정 관련 의견 나눠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000만 애인시대를 맞이해 11월 11일 송도컨벤시아 그랜드볼룸(2층)에서 다양한 시민과 분야별 전문가, 이주민 등 각계각층의 시민 1000여 명과 함께 '1000만 애인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1000만 애인(愛仁) 소통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주요 시정의 홍보 및 의견수렴 기능을 했던 기존 토론회 형식에서 벗어나, 인천시의 각종 위원회 중 정책 자문 기능이 있는 30여 개 위원회의 위원과 분야별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시정에 대해 자유롭게 다양한 의견을 발표하고 유정복 시장과 직접 소통하는 진정성 있는 토론회로 마련된다.

특히, 10개 분야(소통·청년, 환경, 경제, 미래산업, 해양항공, 도시계획, 문화관광, 보건복지, 여성가족·교육, 교통

분야)의 인천시정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1년간 이슈 연관어를 제시하고, 관심 분야에 맞게 빅데이터 연관어를 선택해 인천시장과 함께 자유롭게 소통하고 토론회는 100분 원탁토론으로 진행된다.

1000만 애인 소통 토론회는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인천시 홈페이지, 배너 QR등록 등으로 참가 신청할 수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좋은 제안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대의 기자 dykimi@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05 | 해짐 / 17:27

11월 9일 (木)
음력 : 9월 26일

수도권 날씨 8 ~ 17°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4/16, 동두천 5/16, 가평 3/16, 파주 5/15, 서울 8/17, 양평 5/16, 인천 10/17, 수원 8/18, 용인 8/18, 평택 4/18, 백령도 14/15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이정후,美 매체 선정 FA 18위...샌프란시스코행 전망
▲피치클록 효과...ML 가을야구 평균 경기시간 21분 단축 /사진 뉴시스

▲PGA투어아메리카, 내년 3월 첫 선...16개 대회 개최
▲KBO 이사회, 제25대 총재 후보로 허구연 추천



▲배구 유망주 이우진, 이탈리아 몬차와 계약...“뛰어난 재능” /사진 뉴시스
▲삼성화재 요스바니·정관장 메가, 프로배구 1R MVP